

일본 경제 동향

(Japan Weekly Economic Digest)

2013. 03. 18

- ① 일본경제지표
- ② 주간경제이슈
: 일본정부, TPP 교섭참가 선언
- ③ 경제정책동향
- ④ 일본기업동향
- ⑤ 한국관련워치

① 일본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 2012년 4/4분기 GDP성장률은 ▲0.4%로 3/4분기보다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었고, 연간으로는 1.9% 기록
- 2012년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인 7조엔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2013년 1월에는 월간으로 사상 최대인 1.6조엔 적자를 기록
 - * 2012년 對한국 무역수지 흑자는 16.7천억엔으로 축소
- 2012년 해외직접투자는 對세계, 對한국 모두 2011년보다 증가
- 2012년 경상수지는 4.7조엔으로 2011년보다 흑자폭이 대폭 축소
- 2013년 2월 평균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93.2엔, 3월18일 기준 94.9엔

구분	2011	2012	2012						2013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실질GDP증가율(연율,%)	0.3	(1.9)	▲3.5			▲0.4			-	-
수출(천억엔)	653	(637)	53	50	54	51	50	53	48	-
수입(천억엔)	697	(707)	58	58	59	57	59	59	64	-
對한국 수출	52.1	(49.1)	3.96	3.85	3.98	3.94	3.93	4.35	4.01	-
對한국 수입	32.9	(32.4)	2.78	2.44	2.42	2.70	2.82	2.84	3.12	-
직접투자(억달러)	(1,157)	(1,223)	287			339			-	-
對한국 투자	(24)	(40)	4.9			9.4			-	-
소비자물가(%)	0.0	(0.0)	▲0.2	0.2	0.2	0.0	▲0.3	▲0.1	▲0.3	-
실업율(%)	4.5	(4.4)	4.3	4.2	4.3	4.2	4.2	4.3	4.2	-
경상수지(천억엔)	76.2	(47)	6.3	4.5	5	3.8	▲2.2	▲2.6	-	-
엔화 對미달러	79.1	(80.1)	79	78.7	78.2	79	80.9	83.6	89.2	93.2
환율 對원화	(1,391)	(1,413)	1,446	1,438	1,439	1,401	1,344	1,288	1,197	1,166
외환준비고(기말 천억달러)	12.9	12.7	12.7	12.7	12.8	12.7	12.7	12.7	12.7	-
은행대출금리(%)	1.48	-	1.40	1.40	1.38	1.38	1.38	1.36	1.36	-

주1) ()는 역년(1~12월)기준

2) 소비자물가, 실업률, 환율, 대출 금리는 기간평균

자료: 일본경제신문, 재무성, 한국은행

□ 주요 연구보고서

- 『엔저가 아시아경제에 끼치는 영향 : 한·중 비교를 중심으로』 경제산업연구소, 3월9일
*출처:<http://www.rieti.go.jp/users/china-tr/jp/ssqs/130308ssqs.htm>
- 『글로벌넷치 탑 기업으로 대표되는 모노즈쿠리 중소기업 연구』 경제산업연구소, 3월13일
*출처:<http://www.rieti.go.jp/publications/nts/13j007.html>
- 『일본의 통계 2013년』 총무성 통계국, 3월13일
*출처:<http://www.stat.go.jp/data/nihon/index.htm>
- 『엔저·원고 하에서도 한국은 위험인가 : 한일 기업간 경합배경과 일본기업의 과제』 일본종합연구소, 3월14일
*출처:<http://www.jri.co.jp/MediaLibrary/file/report/researchreport/pdf/6657.pdf>

② 주간경제이슈 : 일본정부, TPP 교섭참가 선언

□ 아태지역의 무역규범 주도과 미국과의 새로운 경제권 구축 강조

- 아베 총리는 3월 15일, TPP교섭 참가를 정식으로 선언
 - TPP는 아태지역의 미래번영을 약속하는 틀로서 미국과 새로운 경제권을 구축하고 아태지역을 규범제정을 주도할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교섭참가에 따른 영향이 큰 농업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
- 기자회견 내용의 주요 포인트는 ▷ 아태지역의 무역규범 제정 주도, ▷ 일본이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기회, ▷ 교섭참가에 의한 경제적인 플러스 효과와 안보 기여효과, ▷ 민감 품목에 대한 특별배려 노력, ▷ 농업의 성장산업화 등임
- 일본정부는 앞으로 미국 등 11개 교섭참가국들과 일본의 참가의사를 통보하고, 아직 동의를 얻지 못한 미국, 호주 등 5개국에 동의할 경우 빠르면 금년 6월에 일본의 교섭참가가 정식 결정

□ TPP 교섭참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발표

- TPP를 담당하게 될 아마리 아키라(甘利 明)경제재정·재생담당대신이 TPP교섭 참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시산결과를 발표
 - 수출 증가 등에 의한 3.2조엔의 GDP증대효과(0.66%) 발생
 - 저가 농산품 수입으로 농림수산업 생산이 3조엔 정도 감소하게 될 것이나, 다른 산업의 생산증가 및 소비 확대가 이를 보전
 - 구체적인 경제효과는 소비에 의한 영향이 3조엔(0.61%), 투자가 0.5조엔(0.09%), 수출이 2.6조엔(0.55%)의 GDP 증대효과가 있음
 - 수입 증가로 인한 GDP감소 효과는 2.9조(0.6%)으로 시산
- 그동안 TPP 영향에 대해서는 내각부,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이 개별적으로 시산해왔는데, 이들 3개 부처의 전제나 계산방법 등이 달라 일본정부가 통일된 시산작업을 추진
- 아베 총리는 시산결과에서 나타난 농림수산물의 생산 감소와 관련하여, 어디까지나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국내 대책을 전제로 하지 않는 매우 단순한 가정에 의한 것이며, 실제로는 교섭에 의해 민감 품목에 대한 특별 배려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힘

□ 민감 품목의 인정범위와 함께 금융, 정부조달도 쟁점

- TPP교섭에 참가하는 11개국들도 나름대로 민감 품목들이 있음
 - 향후 일본과의 개별협상에서는 쌀과 쇠고기 등에 대한 관세철폐만이 아니고, 금융서비스나 정부조달 등을 둘러싼 논의도 예상
- 넛케이에 따르면 쌀과 보리, 유제품은 대일 수출 확대를 노리는 미국 및 호주와의 교섭이 과제
 - 그 외에 주목되는 것이 현재 일본의 관세율이 0~20%인 목재인데, 생산국인 미국과 캐나다, 뉴질랜드가 일본과의 개별협상에 나설 예정
- 일본의 자동차수출과 관련해서는 아시아 국가들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단계적인 관세율 인하 요청이 예상
- 관세철폐 이외의 분야에서는 호주가 금융서비스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음
 -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금융기관들의 아시아진출도 활발한 만큼, 개별협약에서 일본은행들의 아시아진출을 견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
- 공공사업 입찰 등 정부조달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미국, 캐나다, 베트남 등이 자국기업을 우선시하여 시장개방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교섭이 주목되고 있음

□ TPP참가에 대한 대내외 반응

- 대내적으로는 일본의 산업계에서는 TPP교섭참가가 유익하다는 의견이 많음
 - 특히 아태지역에서 적극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업체는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되어 수출 증가, 고용 확대에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 반면, 최소시장접근(minimum access)방식으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쌀은 연간 77만톤의 수입한도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 778%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철폐될 경우 농가에 대한 타격이 큼
- 대외적으로는 한국과 중국이 TPP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넛케이신문에서 보도
 - 한국은 한중FTA를 우선시하여 한중일 FTA에는 비교적 소극적이었으나, 일본이 TPP교섭참가 쪽으로 기울고 난 이후부터 한중일 FTA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
 - 중국의 상무상은 일본의 TPP참가에 대해 “제3자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아태지역의 자유무역권에서 중국이 배제되는 것을 경계

③ 경제정책동향 : 산업구조개혁 집중 실시

- 일본정부는 3월 15일 개최된 산업경쟁력 회의에서, 향후 5년간을 집중기간으로 설정하고, 산업구조 개혁을 추진하기로 결정
 - 산업재편 등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세제 등을 지원하는 외에, 고용제도를 재검토하여 전문 인력의 이동을 촉진하고 일본경제를 견인할 세계 톱클래스의 기업을 육성할 계획
- 세계적인 규모의 기업재편으로 강대기업들이 탄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업종 내 과당경쟁이 계속되는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산업의 신진대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
 - 이를 위해 기업구조, 고용, 인재육성 등 3개 분야의 개혁을 추진, 매출 및 고용에서 세계적인 규모의 글로벌 메이저기업과 특정 분야에서 높은 세계시장점유율을 가진 글로벌 니치기업의 수를 늘리는 것이 목표
- 기업구조 분야에서는 전략분야에 대한 집중투자, 기업의 조직개편, 사업배분의 전환 등을 추진하는 기업을 세제 및 규제 완화 양면에서 지원
 - 개인투자자에 의한 창업지원을 촉진하는 엔젤세제를 확충
- 고용분야에서는 성장산업으로 노동자를 원활하게 이동시키기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
 - 종업원을 해고하지 않고 휴직시킨 기업을 지원하는 현행 고용조정조성금은 축소하는 대신, 성숙산업에서 성장산업으로 노동력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동이동지원조성금」을 내년부터 강화
 - 고용유지 중심인 기존의 고용정책에서 전환, 산업구조 변화에 부응하여 전직 지원을 위한 발판을 마련
 - 고용의 미스매치(mis-match)를 해소하는 동시에 기업의 신진대사를 지원함으로써 성장 동력을 끌어올린다는 목표임
 - 현행 고용조정조성금에 대해서는, 경제혼란 시에 실업자의 급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비채산사업에 노동력이 적체되어 성장분야로의 인력이동에 제약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

4 일본기업동향

□ 신일철주금, 생산체제 재편을 위한 중기경영계획 발표

- 신일철주금은 3월 13일, 일본 내 생산체제 재편을 골자로 한 3개년 중기경영 계획을 발표
 - 키미즈제철소의 고로 외에 강관 및 강관 가공설비도 4개 제철소에서 합계 14개 라인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함
- 작년, 합병에 따른 과잉설비 등을 축소·집약하여 코스트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에 대비 차원에서 추진
 - 매출액 경상이익률 10% 달성을 중기목표로 설정하고, 해외생산능력 증강을 위해 적극 투자할 계획
- 이번 중기계획은 작년 10월, 신일본제철과 스미토모 금속이 합병한 이후 첫 번째 중기계획으로, 철강수요가 증가되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고로건설 등 설비투자를 확대할 계획
- 중기계획의 효과는 일본 내 생산체제 재편을 통해 3년 후 생산효율화만으로 연간 600억엔의 코스트절감을 예상
 - 키미즈제철소의 3개 고로 중 가장 오래된 제3고로를 2016년 3월까지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나, 장기적으로는 폐기될 것으로 보임
 - 남은 2개의 고로는 조업방법 개선 등을 통해 제철소 전체의 조강생산능력은 유지될 전망
 - 키미즈와 카지마제철소 등 4개 제철소에서 향후 2년간 모두 14개 라인의 가동을 중단시키고, 강관 및 강관을 대상으로 효율이 좋은 다른 라인에 생산을 집중시킬 계획임
- 중기계획에서는 연간 2,000억엔 이상의 통합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생산체제 재편에 더하여 기술개발에 의한 비용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 해외에서는 자동차, 자원에너지, 철도, 건축토목 등의 인프라 관련 분야의 설비투자를 확대하여 강재의 가공 거점망을 확충
 - 성장을 위해 국내외에서 연간 1,000억의 투자한도를 설정

5 한국관련워치

□ 우베홍산 말레이시아에서 한국기업과 합작하여 타이어용 고무생산

- 우베홍산이 2014년부터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의 롯데그룹, 일본의 미쯔비시상사와 저연비 타이어제조용 합성고무를 합작 생산기로 함
 - 우베홍산은 브타지엔 고무를 원료로 하는 타이어제조용 고무의 세계적인 생산업체로, 이번 합작을 통해 연간 생산능력이 20% 증가된 약 3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
 - 고무원료의 생산 경쟁력이 있는 한국의 대형 화학업체와 제휴, 동남아시아에서 증가하고 있는 타이어제조용 고무수요를 흡수한다는 전략
- 말레이시아의 합작기업은 2013년 3월에 설립
 - 우베홍산과 롯데그룹 계열의 롯데케미컬이 각각 40%씩, 미쯔비시상사와 롯데케미컬의 자회사인 타이탄 케미컬(말레이시아)이 10%씩 출자 예정
 - 생산능력 5만톤, 투자규모 55억엔으로 2016년까지 연간 22,000톤 증강을 검토
- 우베홍산은 현재 치바공장과 중국에서 브타지엔고무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능력은 연간 25만 4,000톤 정도
 - 동남아시아지역에는 브리지스톤과 동양고무 등 타이어업체들이 잇따라 공장을 신설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합작공장에서 생산된 원료는 일본계 타이어업체에게 공급할 예정
- 우베홍산은 원료인 브타지엔의 물량부족에 대비, 말레이시아와 한국에서 생산하는 롯데그룹과 제휴함으로써 원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여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전략임